

1배마다 노동인권 떠올리며 10만배 회향

노동위 구립 26일 회향식 개최, 국민관심 호소

구립 26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 장호 스님의 몸에서는 추운 겨울을 잊게하는 뜨거운 김이 피어 올랐다.

조계종 노동위원장인 그는 이날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10만배 기도' 회향식에 참여해 108배를 올렸다. 10월 17일 시작된 10만배 기도는 25일까지 조계종 노동위원들과 시민단체, 각계 근로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하루 1000배씩 100일 동안 진행했다.

기도에 참여한 이틀만 200명에 달한다. 대한문 앞에 꿇을을 걸고 1000배 기도를 하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람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었다. 특히 반세도록 3000배 철야기도를 할 때는 따뜻한 음료를 주는 등 쌍용차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동참자들의 노력에 대해 마음 속으로 큰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날 10만배 회향식은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인 도철 스님의 집전으로 10만배 회향법회로 진행했다.

절을 마친 뒤 장호 스님은 "100일간 기도를 계속하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장호 스님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쌍용차측과 23명의 희생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4명의 노동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새 정부에서는 노동인권이 자리잡는 새로운 분위기가

싹트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쌍용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5대종단이 함께 구성한 33인 원탁회의에서 정치권과 사측으로부터 국정조사와 노사대화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히면서 "대선이 끝났으니 정치권이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고에 노동자 23명 목숨 포기

총 200명 하루 1000배 릴레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보듬기 나서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4명의 죽음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는 특히 더 무겁게 다가온다"며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민생정치와 국민행복시대 공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정치권과 박 당선인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조계종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회향식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정치권과 기업주, 노동자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통해 노동위는 "노동 현안은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



10만배 기도 정전에서 참가자들이 쌍용차 문제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며 "노동문제 해결은 화합, 평화, 상생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또 정치권을 향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지는 데에는 노동현장을 외면해 온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호소문은 정치권이 "진심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주들에 대해서도 "회사의 이익을 따지기 전에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달라"고 요구했다. 호소문은 "노동자 없는 회사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노동위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곧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노동위는 끝으로 "결코 국민은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이날 25일 하이힐 한국외대 노조지부에 대한 에도문을 발표했다. 하이 지부장은 한국의 대 불교학생회장을 지낸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름다운 동행, 기부 행렬 잇달아 '훈훈'

바자회 수익금, 목도리, 쌀 등 전달... 이웃 사랑 실천

연말을 맞아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따뜻한 이웃들의 손길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구립 26일은 성동구립 연꽃어린이집(원장 정명자)에서 아동들이 직접 뜬 목도리와 기급전달식을 했다. 전달식에는 해오름반(7세 아동) 약 20명의 아이들이 직접 뜬 목도리 60개와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바자회 판매 수익금 20만원을 전달했다.

어린이집 정명자 원장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받는 이들에게 잘 전해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같은날 NH농협은행 종로지점(오두희 지점장)은 사랑의 쌀 200포대(10kg)를 동행에 전달했다. 기증한 쌀은 저소득가정에 나눠준다. NH농협은행은 아름다운동



행에 매년 쌀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상문 PGA프로골퍼는 구립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배 씨는 2008년 아름다운동행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포교원 불교입문 영상교재 무료 보급

'불교입문', '불교개론' 등 PPT와 동영상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신도교육 조직화를 위해 영상교재 보급에 나섰다. 교육원은 '불교입문', '불교개론', '부처님생애' PPT 3종과 '초심자를 위한 입문안내' 동영상 DVD를 제작해 상반기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파워포인트 교재는 각 강좌별로 강의 핵심내용과 함께 사진, 일러스트로 이해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초심자를 위한 입문안내' 동영상DVD에는 불교에 처음 입문한 신도들이 종무소에서 안내를 받고 법당에서 예의를 갖추는 과정이 설명돼있다. 포교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영상자료는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보급할 예정"이라며 "통일된 교육교재를 활용함으로써 신도교육의 체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문화사업단 신입단장에 정산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신입단장에 중앙종회의원 정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구립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산 스님에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양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산 스님은 1981년 사미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범어사 금어선원서수



행진했다. 중앙승가대 동문회 사무국장 겸 기획실장, 범어사 사회국장 겸 기획국장, 개운사·황련사·모은암·동명불원 주지 등을 역임했다. 14~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며 현재 종립학교관리위원이다.

노덕현 기자

박지연 대불련 51년차 중앙회장 선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1년차 중앙회장에 박지연(법명 보명화·단국대 2학년) 씨가 선출됐다. 신입 박지연 회장은 구립 23일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42표 중 35표를 얻어 신입회장에 당선됐다. 박 회장은 2012년 천안지부 단국대 불교학생회장을 역임했다.

박 회장은 대불련 운영기조로 '주체적



인 대학생 불자' '소통하는 대학생 불자'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대불련의 미래비전을 통해 50주년을 맞아 새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서민 기름값 낮추기 종교계가 나섰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봉은사 등 불교계 참여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에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가 적극 참여한다.

이태복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 상임대표와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구립 26일 봉은사 성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국민석유회사 설립을 위한 1인 1주 갖기운동을 적극 펼쳐나간다고 밝혔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지금보다 20% 싼 값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 방식의 사회적 기업인 국민석유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나누는다는 차원에서 종교계가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석유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종교위원회를 구성했다.

불교계 인사로는 동국대 이사장 정원 스님과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

님,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석유회사준비위는 또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약정운동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953여원을 모금해 약정 목표액인 천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국민석유회사'의 설립취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설립운동에 종교계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복 대표는 "국내 정유4사가 비싼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국민석유회사가 앞으로 시베리아 등의 값싼 저유황 원유를 도입해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국산 촉매제 개발로 중소기업 육성과 5천 5백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상담과 함께 하는 청소년 진로캠프

스트레스 해소, 진로 탐색 프로그램 눈길

마인드힐링 명상상담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소년 명상진로캠프'를 2일간 진행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반과 중학생반, 고등학생반으로 이뤄지며 각 반은 5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28만원으로 검사비 및 교재, 식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캠프 내용으로는 △꿈을 찾아서 △who am I? △아듀! 스트레스 △소통하기 △명상상담 △진로탐색 △나의 꿈, 나의 길 △비전세우기 등이 진행된다. (032)322-6122

노덕현 기자

동국대 정시 모집 학생 대거 몰려

전체 1386명 모집에 7953명 지원...연극학부 34대 1

3년 연속 대학평가에서 순위가 상승한 동국대에 신입생들이 대거 몰렸다.

동국대(총장 김희옥)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2013학년도 정시 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12월 26일, 최종 경쟁률이 5.74대 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1386명을 선발하는 정시 모집 전형에 7953명이 지원한 것.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가군 연극학부로 16명 모집에 545명이 지원해 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제11교구본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재	무	종	천
학	장	덕	민	사	회	중	민
선	원	종	우	포	교	성	요
총	무	종	천	호	법	각	천
기	획	정	문	사	서	정	빈
교	무	정	수	회	계	성	명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